



김봉환 질병칼럼

「여름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인가?」



김 봉 환
(경북대 교수)

모심기가 끝날 즈음이면 옛 어른들께서는 몹시 기쁘셨던 것 같다. 물사정이 좋을 때는 장마철 이전에 모심기를 모두 마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산골의 모내기는 7월 장마가 들어야 겨우 마치고 했다. 어찌되었든 모내기가 끝나면 우리 동네에서는 돼지고기 파티(?)를 매년 가진,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때쯤이면 생생히 떠오른다.

요즘 생각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고기국 먹는다는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기억은 시골서 자란 중년층은 무슨 뜻인지 피부로 느끼리라 믿는다. 어른들께서는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하시며 천천히 먹으라고 겁(?) 아닌 겁을 주시곤 하셨다. 사실인즉 잔치집이나 초상집에서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후덥지근한 여름철에

많으며, 이것은 거의가 다 돈육의 살모넬라균 오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옛어른들께서는 그저 여름 돼지고기를 주의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돼지의 살모넬라균증은 돼지에 숙주적응성(宿主適應性)이 강한 살모넬라속균의 감염에 기인하는 전염병이다. 주로 이유한 자돈이나 육성돈에 발생하는 경향이 크며 급성·열성 패혈증(敗血症)과 급·만성 소장결장염(小腸結腸炎)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살모넬라속균에 감염되어도 불현성감염(不顯性感染)으로 아무런 증상없이 내과하는 돼지도 많아 방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일단 이 병이 한 양돈장에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가 없는 한 근절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모넬라 보균돈(保菌豚)은 돈육의 오염원이 되므로 공중보건상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돼지의 살모넬라균증은 주로 2~4개월령의 육성돈에 많이 발생하나, 큰 돼지도 가끔 감염·발병한다. 패혈증형은 갑자기 고열(41~42℃)이 있고 귀 주위·등·다리 부위에 적자색 반점이 나타나며 원기가 없고 극도로 쇠약하여 하루, 이틀 사이에 폐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성 장염형도 어린 돼지에 주로 발생하는데, 병돈은 수양성 설사를 심하게 하며 폐염증상과 신경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증인 경우는 피부의 변색이 뚜렷하다. 만성 장염의 경우는 계속 설사를 하며 심히 여위고, 설사변은 장상피 세포의 괴사편을 함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출혈의 흔적도 볼 수 있다. 패혈증형은 적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 죽지만, 장염형의 경우는 치료만 잘 하면 회복이 된다.

패혈증형 살모넬라균증은 임상증상이 급성 돼지단독, 돼지 콜레라, 파스튜렐라균증, 연쇄구



우리 양돈인들은 살모넬라균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하여 여름돼지고기 기피증을 불식하도록 하자.



균성 패혈증 등과 유사하므로 감별진단(鑑別診斷)에 유의해야 한다. 이 중에서 돼지단독과의 감별진단이 어려울 때가 많다.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없는 돼지단독은 비장의 종대가 두드러진 경우가 많으며, 살모넬라균증의 특징적인 병변인 간에 좁쌀만한 크기의 백색 피사반점의 유무로서 구별할 수 있으나, 확진은 원인균의 분리·동정으로 가능하다. 돼지 콜레라는 발생양상과 비장 경색, 맹장·결장에 단추모양의 궤양·신장피질의 점상출혈반 등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파스튜렐라균증과의 감별은 호흡기증상과 폐병변을 주의깊게 관찰하면 가능하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소장결장염은 4개월령 이전의 이유자돈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설사가 주된 증상인 돼지의 질병은 돼지적리, 증식성 회장염, 이유자돈의 대장균 설사병, 콕시듐증, 바이러스성 장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돼지적리 및 증식성 회장염 등과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돈군의 방역을 위하여 정확한 실험실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감염돈은 개체별로 감수성 항균제를 완치될 때까지 주사하여 주면 효과가 좋다. 우리나라에서 방제되는 살모넬라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는 겐타마이신, 크롤람페니콜, 트리메토프림

- 설파, 푸라조리돈 등이다. 개체치료와 더불어 감염돈과 동거한 돼지에도 물 또는 사료에 감수성 항균제를 섞어서 3~5일간 투여하면 병의 전파와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이 병의 가장 중요한 전염원은 보균돈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사료이기 때문에, 보균돈에 의한 감염·발병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료위생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보균돈이나 오염된 사료와 물에 의해 감염된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균이 쉽게 안착하여 증식하므로, 발병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이유자돈을 여러 농장에서 구입하여 키우는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살모넬라 보균돈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큰 양돈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료중에 살모넬라균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돼지병도 병이지만 살모넬라균의 식육오염으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양돈인들은 살모넬라균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예로부터 전해오는 여름 돼지고기 기피증(?)을 불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